

## 10/26(월) 사사기 묵상 7

### 사사기 2:16-23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 얼마나 속히 타락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세우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 속히 떠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하여 이런 배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7절의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와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경 문화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가장 밀접한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찬란한 문화를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도 가나안 정복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죽고 난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3세대들은 사실 그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만 듣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나안 땅의 문화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남아 있던 원주민들의 문화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뉠 보고 배울 만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또 안정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문화는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다가 점차적으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종교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왕상 16:30-33,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 사사의 출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 웃니엘, 2) 에훗, 3) 삼갈, 4) 드보라, 5) 기드온, 6) 돌라, 7) 야일, 8) 입다, 9) 입산, 10) 엘론, 11) 압돈, 12) 삼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17절상,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사시대는 왕정시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고 사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셨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의 왕으로 계셨다는 증거는 사 1: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여쭙었다’는 것은 이 장로들이 모여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쉽게 소통하고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까이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속히 저버리고 가나안의 화려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토착 문화에 그들의 눈과 마음이 미혹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믿는 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들을 제쳐 두고 우리 눈이 보기에 더 화려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세상의 문화와 우상을 좇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인 유혹과 미혹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에 나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한 코비드 19의 영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깨어 그동안 습관화되지 않았던 개인 경건의 생활과 가정 예배가 잘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 예배와 말씀, 기도생활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습관화되지 않아서입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좋은 영적 습관을 갖도록 시작해 보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 기도제목

1. 그동안 세상 문화로 인한 영적 미혹과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 개인의 신앙과 가족의 신앙을 위해 우선순위를 세우고 영적인 좋은 습관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김기대<캄보디아>, 김기원<중국>, 김데이비드<오만>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